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2949 Kahawai St. Honolulu, Hawaii 96822



주님 수난 성지 주일
 (Palm Sunday of the Lord's Passion)

오늘의 말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태 27, 46)**

제1독서(이사 50, 4-7)

제1독서의 내용은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종의 사명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로서 제시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거절하지 않고, 난관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이 바로 하느님인데 누가 감히 그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원수들은 자기들이 처놓은 덫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독서의 전반부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듣고 말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느님을 향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럴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느님께서 말해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종은 사람들로 부터 온갖 욕설과 모욕, 구타와 비난을 하지만 주님의 종은 이것들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며,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비록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수치스럽고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고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2독서(필리피 2, 6-11)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서 필리피 신자들이 자기를 도와 준 데 대해 고마움의 뜻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바오로 사도가 옥중에서 쓴 글이지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필리피서를 통하여 바오로 사도가 신자들끼리의 화목과 일치를 특히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찬가로 유명한 제2독서에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본성과 업적을 요약한 이 찬가는 초대 교회에서 전례 때 부르던 것으로 바오로 사도가 인용을 하면

서 약간 손질을 하였으며, 그 후 신학과 전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비우시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존재 양상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종노릇을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결국 그분은 인간의 모든 조건, 특히 나약함을 같이 나누십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주님' 으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바로 바오로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는 고백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의 핵심입니다.

복음(마태 26, 14-27.66)

마태오의 수난 복음은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제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데서 시작하여 경비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다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끌려 와서 취조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벨락도의 심문을 받고 당신 대신에 바락빠가 사면되는 수모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고 로마인들의 조롱과 학대를 받으며 처형장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마침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그분은 운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성전의 휘장을 두 가닥으로 찢고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고 지진을 일으키며 백인대장이 신앙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태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내포하는 의미를 묘사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힘이 꺾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아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힘으로 둘러싸일 것이고 죽음의 영역을 떠날 것입니다. 에제키엘서 37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오늘 복음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삶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사

제 1독서 이사야 50,4-7

환 담 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 2독서 필리피서 2,6-11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를 위에 뛰어난 이음을 주셨네. ◎

복 음 마태오 26,14-27,66

영성체송 마태 26,42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례와 표징

4)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부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성직자의 직위가 이제 다시 부활되어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제의 직위인데 초대 교회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자선사업가의 비서 정도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제는 전례의 식이 거행될 때, 사제의 바로 옆에 자리합니다. 중세기의 부제직은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잃고 단지 사제가 되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공의회 이후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는 독립적인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옛날의 봉사자세로 돌아온 부제직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입하고 있습니다. 부제는 강론, 공치사향 전달, 그리고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성체를 분배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 가지 직무, 혼배예식, 세례 그리고 장례식 등에 참석하여 의식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또한 미사집전이나, 고백성사, 병자성사를 제외한, 사제가 맡는 모든 직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제는 사제가 되기 위한 첫 품을 받았으므로 성직자입니다.(세 가지 서품은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을 말합니다.) 비록 부제직의 직위수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미진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과정에서 교회는 성직의 형태를 변형시켜왔고, 이 가운데 몇몇 성직은 별도로 취급하기도 했으며, 그것을 다시 되살려 새로이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출처: '전례와 표징' P. 폴 카스파/성바로 출판사



토막상식 : 성주간

예수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한다. 성주간 동안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부활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준다. 따라서 교회 전례에서 성주간은 전례의 정점을 이루며, 가장 거룩한 시기이다.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성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한다. 이날 이후 성목요일 전까지는 특별한 예식은 없으나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제자들의 배반,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복음을 읽는다. 성목요일이 되면 주님 만찬 미사 직전에 사순 시기가 끝난다. 이날 오전에 각 교구에서는 주교와 사제들이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하며, 사제들의 서약 갱신과 성유 축성식을 거행한다.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와 성품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로써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된다.



선교할 수 있을까

35. 아일랜드 한 청년의 경험

유학 중 방학 때 영어도 배우고 논문을 쓸 요량으로 영국에 잠시 머문 적이 있다. 거기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신 인상 좋은 아일랜드 신부님을 만났는데, 아일랜드 남쪽에 있는 신부님 고향에서 한 청년을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 그 청년은 내가 로마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프리카 체험을 영웅담처럼 들려주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을 비롯해 10여 명이 아프리카 선교 체험을 하고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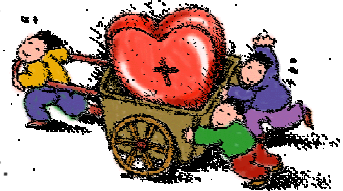
그 청년과 몇몇 아일랜드 청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엔 사람들과의 만남이 긴장되고 서먹했지만, 시나브로 그들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특히 식습관에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용하게 됐으며, 서양인들의 포크와 수저 사용 등 식사 문화도 가르쳐 줬다. 춤과 북 소리에 맞춰 봉헌하는 그들 미사에 빠져들어 그들과 하나가 됐다고 밝은 얼굴로 나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그의 밝은 얼굴에서 단순한 기쁨이 아닌 깊은 회개의 체험이 묻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청년 캠프를 하고 돌아왔던 이탈리아 어느 본당 보좌 신부 이야기도 생각났다. 서구 교회가 성소자들이 부족함에도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장기간 보낸다는 사실에 놀랐다. 선교 현장 방문과 체험을 통해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선교사를 삶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선교 수도회 장상들도 선교사들이 파견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격려하고, 그들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 서구 교회의 많은 교구와 선교회들이 이러한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선교의 의미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젊은이들을 비롯한 평신도에게도 선교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 교회도 점차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신부·수녀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다. 사전에 많은 준비와 정보 습득으로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그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도와주면 그들이 선교사로서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선교사는 선교 현장 체험을 자국 교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민이나 방송을 통해 미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그의 사목을 알려 신자들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직접 선교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럴 때 선교사를 파견한 교회 역시 신앙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보편 교회의 형제애를 나누는 기쁨으로 풍요로워진다. 이러한 모든 교회의 노력을 통해 선교사는 처음 출발이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의 선교 활동은 기쁨의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돌려주시길 것이라 확신한다.



양해룡 신부 / 출처: 평화신문 2010.9.12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옥 선남 안드레아 / 946-2875, 955-9709	애나 미용실 머리,스킨케어(키아모쿠맥도날드건너편) 955-5992, (c)721-4599	회계법인 초이 & 초이 세금보고, 회계업무, 세무감사 최 재호 프란치스코 / 591-0220	굿머슬 클리닉 어깨,허리 통증전문/13년 임상경력 운동처방사 스톤 초이 / 428-5793
옥돌사우나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사우나 589-1800 / 1215 Kona St., Hon.	초원한의원 1411 S. King St., #204(하와이여행사 옆) 원장 전 에스더 / 383-6222	최 니콜 부동산 732-5004, (c)225-5566 www.choihawaii.com	심신치유센터 1188 Bishop St., #3005, Hon. HI 김옥석 마리아 / 521-5990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노경구 부동산 각종 부동산 매매 (노경구 알로이시오) 955-5775 / realty99@pixi.com	코아 택시 & 관광 24 Hour Service 최성근(다미아노) 944-0000/926-1004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성일주/이웃성관광/호텔예약 944-3949/orientour1988@yahoo.com

'성당 홈페이지(kcchi.com)에 가시면 컬러판 주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좋은 생각

다시 드리는 기도

주님,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께는 무엇이든지
그저 달라고만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즉흥적으로 해놓고는
스스로 부담스러워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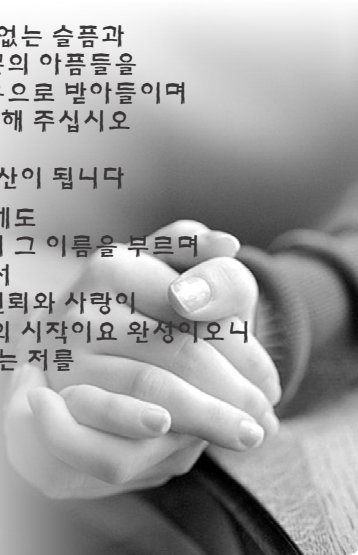
아니 계시다고 외면해 버리기엔
너무도 가까운 곳에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제 많은 말은 접어두고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끊임없이 부르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후렴처럼
언제라도 쉽게 기억되는 당신의 그 이름이
저에게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잠시 하늘의 빛을 끌어내려 감사하고 싶을 때
일상의 발에 묻혀있는 기쁨의 보석들을 깨어내며
당신을 찬미하고 싶을 때
새로운 노래를 부르듯이 당신을 부르렵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싶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들 때
여럿이 모여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서
선뜻 화제를 돌릴 용기가 부족할 때
나직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깨끗이 하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누구도 대신 올려줄 수 없는 슬픔과
혼자서만 감당해야 할 몫의 아픔들을
원망보다는 유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이 고독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계시기에
고독 또한 저를 키우는 산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끝없이 불러야 할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며
깊디 깊은 마음의 샘에서
줄기차게 길어올리는 신뢰와 사랑이
당신께 드리는 제 기도의 시작이요 완성이오니
주님, 이렇게 다시 드리는 저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 이 해인 -



청소년프락

웃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깔과 느낌입니다.
얼굴이 밝게 빛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늘 찡그리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얼굴은 마음과 직결되며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습니다.
이는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간직하면
행복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목 위에서부터 출발하여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나 웃음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얼굴의 뿌리, 웃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화살기도

쓰나미의 피해로 세상을 떠난 뒤
다시 방사능에 피폭되는 두번 죽음을 당한 뒤
화장도 매장도 못한채 육신마저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주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비록 그들이 속해있는 나라가
우리를 다시 분노케 할지라도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께 불쌍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안을 주님의 사랑로 가득 채워주소서,

Beauty Flowers Prom/신부부케,꽃/과일바구니,경조화환 이 데레사 / 955-4044, 791-4044	안경당 한약방(차이나타운) 보약/한약 조제, 교통사고, 타박상치료 박 마리아(토,일) / 536-6398	씨니 살롱 파마, 염색, 영양, 헤어컷트 등 모든것 씨니&샤넬(세실리아&마리아)/942-3777	Han's Gallery 좋은 그림,조각품 있습니다 / 396-5775 Koko Marina Center / 최프란치스코
토다이 Restaurant/ 부페 1910 Ala Moana / 힐턴 호텔 건너편 매니저 김미주 / 947-1000	프로디자인 모든 인쇄, 간판 특수제작 하 미카엘 / 488-7777	State Farm Insurance 자동차, 집 & 생명보험 전문 박영수 (Agent) / 524-9997	테니스 개인지도 학생/일반성인 성실하게 지도함 나 비비안/330-3925
PAUL'S BUILDER 집 수리에 관한 모든 것 김 바오로 / 232-9646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주보관련 의견이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jubo@gmail.com 김용태 요셉(294-5150)